

# 북한개발소식

2026 OCT

10

통권 252호

이달의 주제

북미정상회담 전망과 우리의 기도

탈북민 수기

탈북민 수기 : 김정직 목사 (제 10화)

북한뉴스

북려 잇는 두만강 자동차다리 개통 외



한국 오픈도어 북한선교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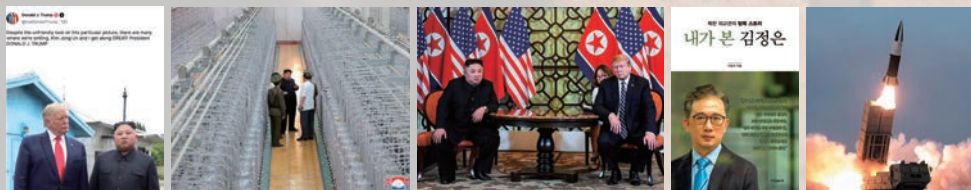
전세계 박해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 CONTENTS 2026 OCT

이달의 주제 :

## 북미정상회담 전망과 우리의 기도

- 권두칼럼 **01** 북미정상회담 전망과 우리의 기도
- 칼럼\_1 **08** 정성장 \_ 시간은 누구 편인가: 2026년 북미정상회담 전망과 우리의 과제
- 칼럼\_2 **13** 문성묵 \_ 북미정상회담 전망과 한국의 대응 방향
- 칼럼\_3 **19** 오일환 \_ 트럼프 미 행정부의 미북 정상회담 재추진과 동아시아 안보 지형의 대전
- 탈북민 수기 **29** 탈북민 수기: 김정직 목사 (제 10화)
- 서평 **34** 내가 본 김정은
- 북한뉴스 **37** 북러 잇는 두만강 자동차다리 개통 외
- 북한 기도 제목 **40** 미·북 회담 통해 해결에 긍정적인 첫 단추를 끼우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권두칼럼

## 북미정상회담 전망과 우리의 기도

오픈도어선교회 북한선교연구소

그 동안 말로만 무성하던 북미 정상회담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통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월 15일(현지시각) SNS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언급하고 과거 판문점 회동 사진을 업로드하였다. 다음날인 16일에는 북한과의 관계와 비용 문제 등을 고려하여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대폭 축소할 것을 지시하였다. 8월 19일에는 올해 안에 김정은을 만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였다. 북한은 57개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구체적 수량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적극적 움직임에 북한은 호응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지를 남기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8월 19일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한미연합훈련 축소에 대해 훈련이 축소, 단축되었더라도 계속 훈련을 벌이고 있다는 점은 여전히 대조선에 대한 적대감을 보여준다고 “전혀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관계가 “의연 훌륭하다”고 언급하며 정상회담에 대한 여지를 남겼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북미 전망회담이 연내 개최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국가정보원은 트럼프와

Donald J. Trump  
@realDonaldTrump · 12h

Despite the unfriendly look on this particular picture, there are many where we're smiling, Kim Jong Un and I get along GREAT! President DONALD J. TRUMP



〈트럼프 미 대통령이 8월 15일 SNS에 업로드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2019년 판문점 만남 당시 사진〉

김정은 간 정상회담은 어느 때라도 가능한 상태라고 평가하였다.<sup>1)</sup>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르면 올 가을 김정은과의 회담을 추진하도록 참모들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만남의 시기로는 오는 11월 중국 선전시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담 기간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sup>2)</sup>

한국에게 이번 회담은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 노선을 채택하면서 대화가 단절되고 남북관계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고 있는 현 구도를 뒤흔들 수 있는 게임체인저로 평가된다. 그러나 실제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회담이 이루어지더라도 어떤 내용이 논의되고 어떤 합의가 이루어질 것인지 등 여전히 불명확한 점들이 많다. 이 글에서는 현재까지의 북미 정상회담에 관한 전망과 이슈들을 정리하고, 한반도 평화라는 관점에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무엇일지 생각해보고자 한다.

## 회담 성사 가능성은?

북미 정상회담이 정말 열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확답을 줄 수 없겠지만, 대체로 성사 가능성이 그렇지 않을 가능성보다 더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 트럼프 행정부나 북 김정은 정권 모두 회담을 통해 얻어갈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북한과의 회담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최근 외교분야에서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현 상황을 꼽는다. 자신이 집권하면 단시일 내에 종전시키겠다던 러우 전쟁은 장기화되고 있고, 이란의 핵개발 저지를 명분으로 시작한 이란과의 전쟁은 제대로 마무리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확산 위험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외교적 성과 부재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회담을 새로운 기회로 여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핵 문제는 바이든이나 오바마 전 미 대통령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이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통해 모종의 진전을 이루어 낸다면, 이를 주요한 대외정책의 성과로 내세우면서 이란 전쟁 관련 부정적인 여론을 희석시킬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동아시아에 영향력 확대 및 중국 압박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트럼프 개인으로서는 지난 1기

당시 북한과의 회동이 전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경험이 있는 만큼, 세계 평화에 공헌하는 ‘피스메이커’로서의 위상을 세우고 노벨평화상 수상도 기대해 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미 협상이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이유이다.<sup>3)</sup>

북한 입장에서는 자신의 핵무력이 2019년 하노이 회담 당시에 비해 더욱 고도화되었고, 동북아의 진영화 흐름 속에서 중국,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자신의 전략적 입지를 다진 만큼, 미국의 안전보장이나 한국의 경제지원이 과거만큼 절실하지는 않아 보인다.<sup>4)</sup> 그렇지만 이러한 북한의 상황이 미국과의 정상회담이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다. 경제적으로나 자신의 전략적 위상을 위해서나 미국과의 회담은 북한에게 기회이기 때문이다. 전봉근은 최근 북한 경제가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고, 일상적인 국제 경제 활동에서도 배제되어 있으며, 국제적으로 ‘불량국가’ 이미지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황인데, 북미정상회담은 이를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외면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sup>5)</sup> 민태은은 북한이 회담의 목표로 비핵화를 피해갈 수 있다면 미국이 먼저 나서는 모양새인 북미정상회담을 마다할 이유가 없으며, 오히려 자신을 핵보유국의 위상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이자 자신의 전략적 가치를 상기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sup>6)</sup>

## 협상 내용에 관한 전망

그렇지만 북한이 과거보다는 여유를 가지고 미국을 대할 수 있게 된 만큼, 북한이 회담에 나서도록 만들기 위해 넘어야 할 문턱은 분명 높아졌고, 이는 과거와는 다른 접근법과 유인책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특히 북한은 핵포기를 전제로 하는 대화에는 나서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기 때문에, 이번 회담에서도 북한은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자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신의 핵과 미사일 능력을 감축시켜야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단계적 동시적”으로 추진하기를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sup>7)</sup>

미국 내에서도 북한에게 기존의 CVID, 즉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

1) 국정원 "북미정상회담 어느 때도 가능...북미 간 대화 징후", MBC뉴스 (2026.09.01.), <[https://imnews.imbc.com/news/2026/politics/article/6848812\\_36911.html](https://imnews.imbc.com/news/2026/politics/article/6848812_36911.html)>

2) "트럼프, 연내 김정은과 회담 추진...11월 APEC 가능성", KBS뉴스(2026.08.19.),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640663>>

3) 민정훈(2026), "북미 관계 전망", 외교안보연구소 IFANS FOCUS (2026.08.24.), p. 6

4) 전봉근(2026), "북미정상회담 개최 가능성과 북핵 외교 재가동 방안",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IFES BRIEF 2026-17 (2026.08.31.), p. 5.

5) 위의 글, p. 6.

6) 민태은 (2026),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정상회담 개최 시사: 제안 배경과 대응 방안",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26-58 (2026.08.25.), pp.4-5.

7) 민정훈, 앞의 글, p. 5.



〈빅터 차(Victor Cha) 전략국제문제 연구소(CSIS) 한국 석좌〉

돌릴 수 없는 핵폐기(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ing)를 요구하는 것은 현 상황에서는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대북 강경파로 알려져 있는 빅터 차(Victor Cha) 미국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가 포린어페어스(Foreign Affairs)에 기고한 “North Korea as It Is: The Case for a Cold Peace”<sup>8)</sup>는 이러한 미국 내의 최근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 이 글에서 빅터 차는 비핵화는 장기적

인 목표로 남겨두면서 그 이전 단계로 미국의 안보적 필요를 해소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즉 미 본토 보호, 미국에 대한 적대적 존재의 감소, 북한의 핵무기 이용 가능성 감소, 그리고 북중러 연대 약화 등이다. 이를 위해 북한과 대화를 가지고 군비 축소, 핵 실험 및 미사일 생산 억제, 위기 관리 체제 구축, 그리고 핵무기와 기술의 비확산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즉 북한의 추가 핵 고도화를 막고 위기를 관리하는 차원의 ‘차가운 평화(Cold Peace)’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북한의 강경한 입장,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고 합의 가능성을 높여야 하는 트럼프 행정부, 그리고 미국 외교가 내의 논의 등을 고려해 볼 때,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내용은 전면적인 비핵화보다는 단계적으로 절충안을 찾아 나가는 ‘스몰딜’ 가능성이 높다. 김용현은 북미 모두 상대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상황에서 양측이 지속적 협상을 통해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을 찾아나갈 필요가 있는 만큼 빅딜 보다는 ‘스몰딜’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그리고 미국이 북한 체제 안전보장을 위한 종전선언·평화협정 등을,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의 감시 아래 핵탄두 원료인 고농축우라늄 생산 중단 등을 교환하는 것을 가능한 거래로 언급했다.<sup>9)</sup> 서보혁은 북미정상회담의 실현 가능한 최적의 시나리오는 스몰딜 타협이라 평가하고, 북한의 ICBM 시험 유예 및 핵 동결을 대가로 미국의 연합훈련 축소와 일부 제재 완화를 교환하는 방식을 언급했다.<sup>10)</sup>

8) Cha, Victor (2026), “North Korea as It Is: The Case for a Cold Peace”, Foreign Affairs, Vol. 105, Issue 3(May/June 2026), pp.86-99.7

9) “북미정상, 연내 회동 유력… 북핵 ‘스몰딜’ 논의할 듯”, 서울경제 (2026.09.15.), < <https://www.sedaily.com/article/20090661> >

10) “북미, SPN정상회담 성사시 스몰딜 가능성…핵 중단, 평화체제와 동시 협상해야”, SPN서울평양뉴스 (2026.09.15.), < <https://www.sp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0776> >

## 북미정상회담은 목표가 아닌 시작점

북미 정상회담의 스몰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국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적대적 두 국가 노선을 위시하여 북한이 남한과의 모든 창구를 차단한 상황에서 남북관계의 답보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게다가 북핵 폐기를 목적으로 하는 제재만으로는 북한의 핵 능력 증강을 제어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필요도 있다. 앞서 언급한 ‘차가운 평화’ 역시 지난 30년간 북한이 수십 개의 핵탄두와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 등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한 외교·제재 전략이 사실상 실패하였다는 진단에 그 배경을 두고 있다. 한국에게 북미정상회담은 이러한 답답한 상황을 타개할만한 중요한 이벤트이다. 이런 맥락에서 북미정상회담을 가장 기대하는 나라는 한국이라는 평가도 나온다.<sup>11)</sup>

그렇지만 그 회담의 내용이 문제이다. 이번 회담이 자칫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면서 정작 제대로 된 군비 감축이나 핵 개발 중단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미국이 본토 방어를 위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에만 집중하고 남한을 겨냥한 단거리·중거리 미사일 및 핵능력을 방치할 경우, 남한은 여전히 핵 인질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동안 미국의 국익과 실리를 앞세워 기존 동맹과의 관계에서 여러 잡음을 만들어온 데다가, 일방적으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축소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면서 이러한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다.

북한의 군비 통제가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도 제기된다. 전경주는 군비통제 협상이 가진 근본적인 특성, 즉 상호성과 검증성을 지적한다.<sup>12)</sup> 상호성은 북한이 군비를 축소하는 만큼 한·미도 축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군비통제 협상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는 계속 유지 및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군축 협상의 본질적인 특성을 생각할 때 오히려 그 내용이 협상안에 감축 대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약속을 이행하는지에 대한 검증도 상대적으로 검증이 용이한 한·미



〈북한이 2024년 시험발사한 고체연료ICBM 화성-19형〉

11) 전봉근, 앞의 글, p. 5.

12) 전경주(2026), “북미 군비통제 협상론의 한계와 한국 정부의 정책 방향”, 아산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No.2026-24.

에 비해 북한에 대한 검증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거기에 더해 북한이 협상 내용을 명목상으로는 준수하면서도 협상에서 빠진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군비를 증강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았다.

이런 맥락에서 북미정상회담은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닌, 문제 해결을 위한 시작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진단이 나온다. 정성장은 ‘북미회담이 열릴 것인가’가 아닌, ‘그 회담에서 어떤 거래구조가 만들어지고, 대한민국의 핵심 안보 이익이 얼마나 반영될 것인가’가 핵심이라고 주장한다.<sup>13)</sup> 그는 북미정상회담이 북한 핵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만큼, 이번 회담의 가치는 비핵화의 돌파구보다는 장기적인 핵 증강 제한 협상의 문을 여는 데서 찾아야 한다고 진단하였다. 그리고 한국의 핵심 안보이익이 충분히 반영된 경우, 부분적으로만 반영된 경우, 미국과 북한에는 정치적 성공으로 보이지만 한국의 안보에는 실패한 합의가 나오는 경우 등을 상정하여 경우에 따라 미국과의 후속 협상을 추진하는 등 전략적인 대응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 우리의 기도

계속 증강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을 생각할 때, 북한을 억제하기 위한 평화적인 노력의 필요성은 분명하다. 상당 기간 남북 관계의 어려움이 이어지다 보니, 일각에서는 북미정상회담 성사가 북핵 문제 해결의 진전과 남북 관계의 돌파구 마련 등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앞선 논의에서 보듯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가 전면적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하기엔 여전히 많은 우려가 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지점이다. 이 글에서는 북미회담을 둘러싼 여러 우려와 기대를 아래와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정리해보고자 한다.

첫째, 북미정상회담이 단순한 일회성 이벤트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자. 북미정상회담의 성사 자체를 성과로 보는 의견도 있지만, 회담이 성사되더라도 한 번의 회담으로 북핵 문제가 큰 폭의 진전을 이루리라 기대하기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회담이 단순한 한 번의 이벤트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이다. 이번 회담을 시작으로 앞으로 지속적인 대화가 이어지고, 실

제적인 군비 축소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앞으로 열릴 북미정상회담이 장기적인 군축과 북핵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첫 단추를 끼우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자.

둘째, 이번 회담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도록 기도하자. 이번 회담에서 미국과 북한에게는 정치적 성공이지만 정작 한국에 대한 안보 위협은 더 악화되는 결과가 도출될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 이번 회담이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회담의 내용과 방향성이 바르게 설정되도록 기도하자. 이를 위해 한국 정부가 미국과 긴밀한 공조와 의견 조율을 가지고, 이를 통해 회담 내용에 한국의 안보적 우려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기도하자.

셋째, 북미정상회담이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자.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는 말과 같이 표면적으로는 성공적이지만 세부적으로는 북한의 핵개발을 용인 또는 방치하는 합의가 이루어질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 이러한 위험 요소들이 사전에 확인 및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보여주기 식의 현실성 없는 합의가 아닌, 작은 걸음이라도 실제적이고 의미 있는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기도하자.

넷째, 북미정상회담이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현재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노선 등으로 인해 남북 관계는 얼어붙어 있다. 그렇지만 회담을 통해 북미 간의 관계가 개선되고 그러한 흐름이 이어진다면, 남북 관계에서의 긴장도 완화될 여지가 있다. 북한이 주장하는 적대적 관계를 넘어서는데 이번 회담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13) 정성장(2026), “2026년 북미정상회담, 무엇을 거래하고 무엇을 지킬 것인가? - 트럼프의 정상외교 재가동과 포괄적 합의단계적 이행 전략 -”, 세종연구소 세종포커스 (2026.09.04).

# 시간은 누구 편인가: 2026년 북미정상회담 전망과 우리의 과제

- 트럼프의 정상외교 재가동과 한국이 지켜야 할 최소조건<sup>1)</sup> -

정성장 (세종연구소 부소장, 한국핵안보전략포럼 대표)

2026년 하반기 한반도 정세의 최대 변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는 8월 16일 한미연합훈련의 대폭 축소를 지시하면서 김정은과의 ‘매우 좋은 관계’를 직접 거론했고, 사흘 뒤에는 올해 안에 김정은을 만나겠다는 뜻을 공개했다. 9월 1일 국가정보원도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에서 북미 간 직접 접촉이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양측이 대화 재개를 모색하는 징후가 있으며 정상 회담이 언제든지 성사될 수 있다고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회담이 열린다는 것과 그 회담이 한반도를 더 안전하게 만든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지금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회담이 열릴 것인가”가 아니라 “그 회담에서 어떤 거래가 만들어지고, 그 결과 한국의 안보와 북한 주민의 삶에 무엇이 남는가”이다.

## 1. 회담은 가까워졌지만, 북한은 서두르지 않는다

2018년의 북한은 국제사회의 고강도 제재와 중국의 제재 협조, 미국과의

1) 이 글은 2026년 9월 4일자 <세종포커스>에 게재된 줄고를 축약·보완한 것이다.

군사적 충돌 위험 속에서 정상외교로 외부 환경을 바꿀 필요가 절실했다. 지금은 사정이 전혀 다르다.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확대했고 중국과의 관계도 회복했으며, 핵무력의 법적·제도적 지위까지 높여놓았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는 이런 변화 때문에 김정은이 제재 완화에 과거만큼 절박하지 않지만, 트럼프와의 회담을 자신의 핵보유 현실을 굳히는 기회로 활용할 유인은 크다고 본다.<sup>2)</sup>

북한의 최근 언행도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김여정은 한미연합훈련 축소에 “전혀 흥미가 없다”고 깎아내리면서도 김정은과 트럼프의 개인적 관계는 여전히 훌륭하다고 강조했고,<sup>3)</sup> 외무성은 8월 31일 미국의 ‘완전한 비핵화’ 요구를 적대정책의 증거로 제시하며 핵무력을 계속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sup>4)</sup> 김정은은 올해 2월 제9차 당대회에서 “미국이 헌법에 명기된 우리 국가의 헌 지위를 존중하며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한다면 우리도 미국과 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sup>5)</sup> 이는 대화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의 조건을 계속 올리고 있는 것이다.

필자가 보기에 북한의 전략은 분명하다. 협상을 서두르지 않고 시간을 벌면서, 미국의 목표를 ‘비핵화’에서 ‘핵위험 관리’ 또는 그 이하로 끌어내린 뒤에 회담장에 앉겠다는 것이다. 회담을 급히 원하는 쪽은 북한이 아니라 가시적 성과를 원하는 미국 대통령이다. 또한 북미 간 접촉이 외부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접촉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물밑 접촉을 철저히 감추는 것 자체가 북한에는 협상 자산이 된다. 요컨대 “시간은 우리 편”이라는 계산이 북한의 행보 전반에 깔려 있다고 보아야 한다.

## 2. 트럼프의 셈법과 한미연합훈련 축소가 남긴 경고

트럼프가 회담을 서두르는 이유는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이란 전쟁 장



<2025년 중국 전승절 당시 시진핑(가운데) 중국 국가주석이 블라디미르 푸틴(왼쪽) 러시아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함께 열병식 참석을 위해 도보로 이동하고 있다.>

2) Victor Cha, “After Iran: A Scenario for Renewed Trump-Kim Summity,” CSIS, August 13, 2026.

3)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주요국제문제들에 대한 립장 발표,” 『조선중앙통신』, 2026년 8월 19일.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 담화,” 『조선중앙통신』, 2026년 8월 31일.

5) “불굴의 개혁투쟁으로 전취한 위대한 승리와 영광을 새로운 려정의 줄기찬 전성과 도약으로 이어나가자-조선로동당 제9차대회에 관한 보도,” 『로동신문』, 2026년 2월 26일. 김정은의 협상 태도에 관한 자세한 분석은 정성장, 『우리가 모르는 김정은: 그의 정치와 전략』 (서울: 한울아카데미, 2024), 230~268쪽 참조.



〈트럼프 미 대통령의 8월 25일 SNS 게시물. 8월 16일 열린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 게시물을 시제만 바꾸어 또다시 게시했다.〉

기화로 국정 지지율이 30%대에 머무는 상황에서 대형 외교 이벤트가 필요하다. 둘째, 그는 오래전부터 한미연합훈련을 비용이 많이 들고 북한을 자극하는 활동으로 여겨왔다. 이번 축소 지시에서 한국이 미국의 대이란 노력에 동참하지 않은 데 대한 불만을 함께 언급했다는 점은, 이 결정에 북미대화를 위한 유화 신호와 한국에 대한 압박이 동시에

담겨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완전한 비핵화보다 북한 핵위협의 ‘관리’를 현실적인 단기 목표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북한이 시험만 중단하고 핵물질과 핵탄두 생산을 계속한다면, ‘위험관리’는 사실상의 핵보유 고착으로 바뀌고 만다.

절차도 심각한 경고를 준다. 트럼프의 지시 이후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합훈련은 당초 11일에서 5일로 단축됐고 일부 야외기동훈련도 줄었는데, 한미 당국자들은 대통령의 공개 지시를 사전에 충분히 공유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8년 싱가포르 회담 이후 한미가 협의를 거쳐 훈련을 조정했던 것과 달리, 2026년에는 회담이 열리기도 전에 미국 대통령이 중요한 협상카드를 먼저 써버린 셈이다. 2025년 11월 한미 공동 팩트시트가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과 핵을 포함한 확장억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긴밀한 대북정책 조율을 명시하고 있음을 생각하면,<sup>6)</sup> 지금 한국이 주목해야 할 것은 미국의 군사능력이 아니라 ‘미국 대통령의 동맹정책 예측 가능성’이 새로운 안보변수로 떠올랐다는 사실이다.

### 3. 위험한 합의를 막는 길: ‘포괄적 합의·단계적 이행’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로는 회담의 결렬이 아니다. 북한은 핵실험과 일부 미사일 시험만 중단하고, 미국은 한미연합훈련을 장기간 중단하고 제재를 크게 완화한 뒤 핵물질·핵탄두 생산과 검증 문제는 후속협상으로 미루는 거래다. 그러면 북한은 핵전력을 계속 늘리면서 정치·경제적 보상까지 챙기게 된다. 북미정상회담은 그 자체가 한국의 국익이 아니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실제로 줄일 때에만 한국에도 의미가 있다.

6) The White House, “Joint Fact Sheet on President Donald J. Trump’s Meeting with President Lee Jae Myung,” November 13, 2025.

현실적인 대안은 두 극단 사이에 있다. 첫 단계부터 전면 사찰을 요구하는 것도, 모든 핵능력을 단번에 없애려는 일괄타결도 성사 가능성이 낮다. 정상회담에서는 장기적 대타협의 전체 방향을 포괄적으로 합의하되, 실제 이행은 낮은 단계에서 시작해 점차 높은 수준의 핵제한과 검증으로 옮겨가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① 외부에서 확인 가능한 핵실험과 모든 탄도미사일 비행시험의 중단, ② 북미·북일 관계 정상화 과정의 가동, ③ 핵전력의 상한 설정과 추가 생산 제한, ④ 신고·감축·확대된 검증과 평화 체제 구축으로 이어지는 순서다.<sup>7)</sup> 여기서 세 가지 원칙이 중요하다. 첫째, 1단계 시험 중단에는 미국 본토를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을 겨냥한 단·중거리 미사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둘째, 관계 정상화 완성이나 광범위한 제재 해제처럼 되돌리기 어려운 보상은 북한이 3단계의 신고와 검증에 실제로 들어설 때 제공하고, 합의 위반 시 제재를 복원하는 ‘스냅백’ 장치를 두어야 한다. 셋째, 주한미군의 규모와 임무는 북미 양자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한미동맹 차원에서 별도로 결정한다는 원칙을 미국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2024년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위원장의 현지지도를 보도하면서 고농축 우라늄(HEU) 제조 시설을 공개하였다. (사진=조선중앙통신)〉

## 4. 한국 정부와 사회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첫째, 한국 정부는 “북미정상회담을 지지한다”는 정치적 메시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대통령실 직속으로 북한·미국·핵·미사일·검증·제재·평화체제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략 T/F를 즉시 가동해, 한국이 양보할 수 없는 최소 조건을 문서로 만들고 한미 사전 조율을 통해 미국의 협상안에 반영시켜야 한다. 회담 결과와 부분합의, 안보 이익 훼손에 대비한 시나리오별 대응 안도 지금 마련해야 한다. 자국의 안보 이익을 다른 나라가 대신 설계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둘째, 냉정한 전망이 필요하다. 미국과 국제사회가 제재를 완화하고 관계 개선을 시도하더라도, 김정은이 ‘핵전력의 상한 설정과 추가 생산 제한’ 조차

7) 정성장, “2026년 북미정상회담, 무엇을 거래하고 무엇을 지킬 것인가?: 트럼프의 정상외교 재가동과 ‘포괄적 합의·단계적 이행’ 전략,” 『세종포커스』, 2026년 9월 4일 참조.

## 북미정상회담 전망과 한국의 대응 방향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받아들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는 9차 당대회에서 핵무기의 수량과 종류를 계속 늘리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고,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영변과 강선에서 우라늄 농축 활동이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한다. 따라서 한국은 한미 핵협의그룹을 통한 확장억제 강화와 함께, 핵비확산조약(NPT)과 IAEA 안전조치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평화적 핵잠재력을 확보하는 데서 출발해 장기적으로는 남북 간 핵균형을 실현할 수 있는 자체 핵억제력 확보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핵을 내려놓지 않는 현실에서 한국의 선택지를 넓혀두어야 협상에서도 발언권이 생길 것이다.

물론 자체 핵억제력 확보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 일각에서 한국이 핵무장할 경우 국제사회의 제재로 한국경제가 파탄날 것이라는 반론이 제기된다. 그러나 한국이 핵무장의 길에 들어서면 일본도 동북아시아에서 홀로 비핵국가로 남지 않기 위해 같은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과 일본이 함께 그 길로 간다면 서방세계가 두 나라 경제를 동시에 파탄낼 수는 없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는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금 당장 핵무장을 추진하자는 주장이 아니라, 핵무장의 대가가 흔히 이야기되는 것만큼 절대적이지는 않다는 뜻이다.

셋째, 회담의 성패가 북한 주민의 삶과 종교 자유로 자동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북한의 억압 구조는 미국과의 관계가 아니라 유일영도체제, 반동사상문화배격법류의 통제, 종교인을 ‘적대계층’으로 분류하는 성분제 위에서 작동한다. 제재가 완화되고 관계 정상화가 진행되더라도 이 구조가 그대로라면 억류 선교사와 지하교회 성도들의 처지는 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대미 관계 개선기에는 외부 정보 유입이 늘어날 것을 우려해 내부 통제와 사상 단속을 강화한 전례가 있다.

북한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일은 한 정권의 임기 안에 끝나지 않는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북정책이 급변하면 한국의 협상력도, 북한 주민을 향한 우리의 메시지도 신뢰를 잃는다. 보수와 진보의 당파적 분열을 넘어선 초당적 협력과 그에 기초한 장기 대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 북미대화는 지지하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실제로 줄지 않고 주민의 삶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 합의에는 반대해야 한다. 시간이 누구의 편이 될지는 결국 우리가 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다. 🐟

〈외부 필진의 의견은 본지의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하 트럼프)이 2026 한미 연합 UFS 연습 개시 직전(현지 시간 8월 16일) SNS를 통해 훈련의 대폭 축소를 지시하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하 김정은)과의 좋은 관계를 강조하면서 과연 북미정상회담이 재개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트럼프는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김정은과 매우 좋은 관계”이고 “자신이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 북한이 위협적이지 않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왔다”는 이유를 들며 “한미 훈련 축소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을지 자유의 방패 훈련 시작 당일에 나온 일방적인 훈련 축소 발표에 대해 미국이 한국을 철저히 패싱한 것이 아니냐 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날 트럼프가 김정은과의 첫 만남은 2018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1월 김정은은 신년 육성 연설을 통해 “남북 관계를 사변적으로 발전시키고 싶다”고 하면서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기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직후 남북대화가 재개되었고 김정은은 김영남 특사와 여동생 김여정을 한국으로 보냈다. 평창올림픽에 선수단도 파견했다. 그리고 우리 특사단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소위 ‘조건부 비핵화’ 입장을 밝혔다. 여기서 조건이란 “군사 위협이 해소되고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비핵화를 못할 일이 없다”는 얘기였다. 사실상 비핵화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거나 다름없다.

평양을 방문했던 우리 특사단은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는 점을 내외에 발표하고 워싱턴으로 날아가 트럼프에게도 전했다. 이에 트럼프는 반색



〈2019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북미 정상회담 도중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다〉

하면서 자신이 김정은과 직접 만나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그리하여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김정은과 트럼프 간 첫 번째 정상회담이 성사되었다. 미국의 현직 대통령으로서 북한의 최고지도자를 만난 건 트럼프가 처음이다. 그리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담은 싱가포르 성명도 합의되었다. 하지만 후속 조치가 미진한 상황에서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두 번째 정

상회담이 열렸다. 회담 결과는 노딜이었다. 김정은은 영변 핵시설 일부를 내주는 대신 북한에 대한 제재를 풀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트럼프는 영변뿐 아니라 북한의 모든 핵을 내려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애당초 비핵화 의지가 없었던 김정은 입장에서는 트럼프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었다.

이후 북한과 미국 관계는 물론, 남북 관계도 얼어붙었다. 2018년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이 있었고 4.27 판문점 공동선언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하고 그해 9월 평양에서 군사적 긴장 완화를 포함하여 남북 관계 전면적인 복원에 합의했지만 이 모두 휴지 조각이 되고 말았다. 김정은은 모든 남북대화와 연락 채널을 차단하고 대한민국을 겨냥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즉,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북한판 에이태킴스(KN-24), 600밀리 초대형 방사포(KN-25) 개발에 올인했다.

트럼프와 김정은은 2019년 6월 30일 판문점에서 극적인 화동이 있었다. 당시 트럼프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마지막 날이자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방한하는 6월 29일 김정은과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김정은이 이에 호응해 만남이 성사된 것이었다. 트럼프는 이 회동에서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 땅을 밟은 미국 최초의 현직 대통령이 되었다. 이 회동에서 이후 실무 차원에서 후속 조치 논의를 합의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다. 이것이 트럼프-김정은의 마지막 만남이었다.

트럼프는 이후에도 기회 있을 때마다 김정은과 좋은 관계를 강조했고 언젠가 다시 만나기를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내놔다. 2024년 대통령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도 김정은 언급을 했고, 2025년 1월 2기 취임식 현장에서도 김정은과의 만남 희망을 언급했다. 과연 트럼프와 김정은과의 만남이 성사될 수 있을 것인가? 이 글에서는 북미 정상회담 전망,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와 우려, 대한민국의 페이스 메이커 역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기도제목 순으로 정리해 보려고 한다.

## 북미 정상회담 전망

지난 9월 1일 국가정보원은 국회 정보위 비공개 업무보고를 통해 “트럼프와 김정은 간 정상회담은 어느 때라도 가능한 상태”라고 밝혔고 여야 간사가 브리핑을 통해 이 내용을 전했다. 국정원은 북미정상회담 관련, “어느 때라도 가능하다고 봐야 한다”면서 “북미간 구체적 접촉 팩트가 확인되는 건 없지만, 대화 징후는 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은 있을까?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그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봐야 한다. 다만 그 가능성이 과연 어느 정도인지는 장담할 수 없다. 그렇다면 회담 성사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은 무엇일까?

첫째, 트럼프의 김정은과의 만남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열정 때문이다. 트럼프는 왜 그토록 김정은을 만나려 하는 것일까? 2018~19년 만남 당시 트럼프는 미국의 역대 대통령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대통령으로 남고 싶었을 것이다. 지난 2월 28일 트럼프는 이란을 향해 장대한 분노(EPIC FURRY) 작전을 개시했다. 명분은 이란 핵 개발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북한 핵도 트럼프에게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대상이다. 물론, 김정은과 한두 번 만남을 통해 북 핵 문제가 해결된다는 보장은 없다. 하지만, 북한 핵 위협을 어느 정도 완화하고 미 본토에 대한 위협을 줄일 수 있다면 그 또한 트럼프의 업적으로 부각시킬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을 것이다. 트럼프는 역사에 평화의 지도자로 기록되고 싶은 강력한 열망이 있다. 그래서 노벨 평화상에 눈독을 들이는 것일 수도 있다.

둘째는, 김정은으로서도 트럼프와의 만남 자체를 거부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9월 김정은은 트럼프가 북한 비핵화라는 허망한 꿈을 버린다면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밝혔다. 김정은이 원하는 것은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받고 적어도 미국과 대등한 핵보유국으로서 비핵화가 아니라 핵군축 협상의 판이 열리는 것이다, 이런 김정은의 속내를 읽고 있는 트럼프는 북한의 핵탄두 개수를 57개로 꼭 짊어 언급하면서 북한의 핵능력을 인정하는 듯한 언급을 했다. 그리고 북한 비핵화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 트럼프가 원하고 김정은이 이를 거부하지 않는다면 회담은 성사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는 것이다. 아직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은 몸값을 높이고 자신이 원하는 판을 만들기 위한 속셈이다.

만일 회담이 성사된다면 언제쯤 어느 장소에서 만나게 될 것인가? 우선, 시기를 보면, 트럼프는 가급적 연내 만남을 성사시키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는 전언이 있다. 국정원도 언제 열려도 이상할 것이 없다고 한다. 현재 미국과 북한 사이 물밑 접촉이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중국은 북미정상회담의 성사를 도울 수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11월 18일~19일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2026 APEC정상회의가 계기가 될 가능성이 크게 점쳐진다. 트럼프도 이 회담에 참석하는 만큼 이를 계기로 만남이 이뤄질 수 있다. 2019년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판문점 회동이 성사된 전례가 있는 만큼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국에 트럼프가 오는 시기가 가능성이 높은 이유이다. 그렇다면 회담 장소는 어떻게 될까? 김정은이 중국으로 오는 방안과 트럼프가 평양으로 가는 방안이 거론된다. 두 가지 방안 중 무언가 보여주고 튀는 것을 선호하는 트럼프의 성향을 감안한다면 평양을 깜짝 방문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김정은이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왜냐하면 트럼프를 평양으로 불러놓고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다면 하노이 노딜이 재현될 수 있다는 부담 때문일 것이다.

##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기대와 우려

다시금 북미정상회담이 열린다면 회담 결과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우려도 크다. 기대되는 점은 이 만남을 통해 당장 북한 비핵화를 이룰 수는 없겠지만 상호 입장을 확인하고 단계적으로라도 이를 성사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북미회담이 남북회담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라는 부분이다. 하지만, 김정은이 원하는 군축 협상의 판이 만들어지는 것이 가장 우려되는 대목이다. 트럼프가 UFS 연습의 대폭 축소를 지시했을 때 북한의 부정적 반응을 보면 그 속내를 알 수 있다. 북한은 연습 축소는 별 의미가 없고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 철회를 요구했다. 북한이 말하는 대북 적대시정책이란 무엇인가? 북한은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의 표본이 주한미군과 한미연합연습이라고 주장해왔다. 이는 한미동맹을 해체하라는 얘기다. 2018 싱가포르 성명에서 합의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그들은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핵우산과 확장억제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대남전략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1950년 김일성이 이루지 못한 대남 전략을 김정은은 핵무기를 통해 이루려 한다. 김정은이 영토평정, 대한민국 초토화 운운한 것이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그런데 가장 큰 걸림돌이 한미동맹이다. 김정은은 핵을 미끼로 한미동맹을 흔들고 있다. 핵 군축이란 바로 이를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입만 열면 주한미군을 축소하고 싶다. 한미연합

연습은 돈이 많이 든다, 미친 짓이라고 말하는 트럼프가 김정은과 다시 만나 북한 핵을 인정하고 일부만 축소하는 조건으로 한미동맹과 거래한다면 대한민국 안보는 한마디로 악몽이다. 2019년에는 불턴이나 폼페이오 같은 전문가들이 트럼프를 보좌했지만 지금은 그런 참모들도 없어 큰 걱정이다.



〈2025년 한미 연합 연습 '울지 자유의 방패'(UFS) 훈련에서 미2사단과 한국 7공병여단이 한미연합 도하훈련을 하고 있다〉

## 대한민국의 페이스 메이커 역할은?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에게 김정은과 만나 피스 메이커가 되어준다면 자신은 페이스 메이커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가 이번처럼 UFS 연습을 일방적으로 축소할 것을 두고 김정은과의 만남을 염두에 둔 위대한 결단인 것처럼 추켜세우기도 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 연합연습 축소과정에서 동맹국인 한국과 사전에 전혀 협조나 소통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다. 심지어 미국 국방부조차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한다. 이뿐 아니라 트럼프는 한국이 이란전에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도 불만을 토로했다. ‘페이스 메이커’란 마라톤 등 경주에서 경주자의 페이스를 적절히 조절해 주기 위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앞서 달리는 사람을 말한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페이스 메이커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를 위해서는 적어도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첫째는 한미 간 깊은 신뢰이다. 둘째는 한미 간 긴밀한 소통이다. 이 두 가지가 전제될 때 제대로 된 페이스 메이커로서의 역할도 가능하다.

지난해 10월 한미는 정상회담을 통해 안보와 경제분야 팩트시트에 포괄적으로 합의했다. 미국의 관세를 인하하는 대신 한국은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미국의 조선업 재건 사업 포함)하고 미국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과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와 관련된 일정한 권한을 확보한다는데 합의한 것이다. 미국도 한국의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우여곡절이 있지만 팩트시트의 본격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들이 이어지고 있다. 물론, 호르무즈 안전 통항과 관련된 한국의 기여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한미가 피로 맺은 혈맹으로서 서로를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북미정상회담 개최와 관련된 모든 문제들을 사전에 협조하고 회담 전략 전반을 논의하

며 회담과 관련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대응한다면 우리가 말하는 페이스 메이커로서 역할이 가능하다. 현재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은 열려있다. 하지만 회담이 열린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는다는 보장은 없다. 기대도 있지만 우려도 크다.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면서 지속 가능한 평화를 만들어야 한다.

### 우리의 기도제목

첫째,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더라도 그저 회담을 위한 회담이 아니라, 진정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여 한반도에서 핵 위협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가져오는 계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둘째, 북미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미가 신뢰를 바탕으로 투명한 소통이 이뤄지며 회담의 준비로부터 전략 수립 및 회담 추진 과정에서 한국이 페이스 메이커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셋째, 북한 정권을 변화시켜 주셔서 북한 주민들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시고 북한의 문이 활짝 열려 복음이 편안하게 전해지고 광복 100년 이내 자유평화통일의 날을 허락하시도록. 

〈외부 필진의 의견은 본지의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칼럼\_3

# 트럼프 미 행정부의 미북 정상회담 재추진과 동아시아 안보 지형의 대전환

오일환 (한양대학교)

## 재개되는 ‘톱다운’ 외교의 신호탄과 동아시아 정세의 격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 이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 잇따라 ‘러브콜’을 보내면서, 한동안 멈춰 서 있던 미북 정상외교의 시계가 다시금 돌아갈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트럼프는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Truth Social)’과 각종 백악관 브리핑, 인터뷰 등을 통해 김 위원장과의 과거 만남 사진을 연달아 공개하고 개인적 친분을 과시하며 연내 정상회담 개최 의지를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있다. 2018년 싱가포르, 2019년 하노이와 판문점에서의 극적인 만남 이후 멈춰 섰던 미북 정상 간의 직접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이 떠오르면서 기대감과 함께 한반도 안보에 미칠 파장에 대한 우려도 교차하고 있다.

그러나 2026년 현재의 동아시아 정세는 1기 트럼프 행정부 시절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궤적을 그리고 있다. 북한은 2019년 ‘하노이 노딜’의 쓰라린 경험 이후 핵무력과 탄도미사일 능력을 비약적으로 고도화했을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을 매개로 러시아와 군사동맹 수준의 밀착을 이뤄냈고, 지난 6월 8~9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으로 중국과의 관계도 대폭 회복했다. 이처럼 든든한 배후를 확보한 북한은 헌법에 핵보유국 지위를 명시하고 ‘적대적 두 국가

론’을 선언하며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외교적·군사적 몸값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대이란 전쟁의 마무리와 11월 중간선거라는 정치적 이벤트를 앞두고 대북 리스크 관리와 외교적 치적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미국이 추진하는 정상회담의 목표가 기존의 ‘완전한 비핵화’에서 현실적인 ‘핵동결 및 군비통제’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미 북 대화의 판이 다시 열릴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이 글에서는 미국과 북한의 내부 전략적 선택, 비핵화 프레임을 둘러싼 미국 내 진통, 한국 이재명 정부의 ‘페이스메이커’ 전략과 안보적 과제, 그리고 향후 회담의 구체적 시나리오와 타결 전망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 트럼프의 ‘피스메이커’ 연출과 톱다운 외교의 재가동

트럼프 2기 행정부 대북 접근법의 핵심은 실무 협상을 거치는 바텀업(Bottom-up) 방식이 아닌, 정상 간의 직접 거래를 선호하는 톱다운(Top-down) 외교의 재가동이라고 볼 수 있다. 트럼프는 이란과의 군사적·외교적 대치가 일단락되어 가는 국면에서, 중동에서의 외교적 부담을 덜어내는 동시에 한반도로 시선을 돌려 자신의 외교적 수완을 극대화하려 하고 있다. 특히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과의 긴장을 완화하여 ‘피스메이커(Peace Maker)’로서의 면모를 대내외에 부각하려는 정치적 계산이 강하게 깔려 있다.

이러한 의지는 2026년 들어 지속적으로 표출된 트럼프의 발언과 행보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 2026년 2월 27일: 백악관은 트럼프가 김정은과 “어떠한 전제조건 없이 (without any preconditions)” 대화할 의향이 있음을 발표했다. 이는 ‘선(先) 비핵화 약속’이라는 과거의 대화 문턱을 대폭 낮추어 정상 간 접촉의 물꼬를 터놓겠다는 유화적 신호였다.
- 2026년 3월 13일: 백악관을 방문한 한국의 김민석 국무총리와의 면담 자리에서 트럼프는 5월 방종을 계기로 김 위원장과의 만남 가능성에 대해 “(김 위원장을) 만나는 건 참 좋다”며 대화 재개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 2026년 6월 13일: 1차 싱가포르 정상회담 8주년을 맞아, 트루스소셜에 당시 김 위원장과 회담장 산책을 즐기던 사진을 별다른 설명 없이 게시하며 정상외교 재개 신호를 암시했다.
- 2026년 8월 15일~17일: 2019년 판문점 번개 회동 사진을 올리며 “김정은

과 나는 사이가 좋다!(get along GREAT!)”고 적었으며, 김 위원장이 자신에게 “도널드, 우리 사이 문제없지?”라고 묻는 유머성 합성 사진까지 공유했다. 백악관 기자회견에서는 북한과의 소통 진전 상황을 “매우 긍정적”이라 평가하며 친분을 과시했다.

- 2026년 8월 16일 및 25일: 피트 헤그세스(Pete Hegseth) 국방장관에게 한미연합군사훈련(UFS)을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했음을 연이어 밝혔다. 트럼프는 대규모 훈련이 “내 임기 동안 매우 잘 행동해 온 누군가(김정은)에게 매우 모욕적인 일”이라며 비용 문제와 북한 자극을 동시에 경계하는 당근을 던졌다.
- 2026년 8월 19일: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문답 중 “김 위원장과 연내에 만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을 받은 트럼프는 “그럴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미국 정상외교를 신속하게 재개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되었다.



〈올 6월 13일, 트럼프 미 대통령은 제1차 북미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장을 산책한 사진을 SNS에 게시했다.〉

## 완전한 비핵화’ 원칙과 ‘현실적 핵동결’ 사이의 간극

가장 거센 논란을 부른 대목은 트럼프의 8월 19일 백악관 브리핑 발언이다. 트럼프는 연내 회담을 암시하면서, “김정은은 매우 강력한 핵무기 57개를 갖고 있다”며 북한의 구체적인 핵 역량을 직접 언급했다. 그러나 회담의 목표가 ‘북한 비핵화’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그 이야기(비핵화)는 하고 싶지 않다”며 대답을 회피했다.<sup>1)</sup>

이는 미국 정부의 공식 대북 정책목표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arization)’와 트럼프의 유연한 협상 방식 사이의 극명한 간극을 노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미국 행정부 내부와 관료 조직은 지속적으로 기존 원칙을 재확인해 왔다.

실제로 2025년 11월 13일 발표된 한미 정상 간 공동 팩트시트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싱가포르 성명 이행을 명시했으며, 2026년 2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및 미 국무부 부대변인, 3월 IAEA 이사회 3국 공동성명, 5

1) 연합뉴스, 2026. 8. 20.

월 미중 정상회담, 6월 한미 핵협협의그룹(NCG) 및 데이비드 와일졸(David Wilezol) 차관보의 발언<sup>2)</sup>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공식 정책은 초지일관 '비핵화'에 고정되어 있었다. 트럼프의 답변 회피로 파장이 커지자 8월 26일 미 국무부는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계속 전념하고 있다”며 정책 변화가 없음을 서둘러 수습하기도 했다.

결국, 2026년 미국의 대북 접근법은, ‘공식 정책목표로는 완전한 비핵화를 유지하되, 트럼프의 정상외교 추진 과정에서는 비핵화를 사전 조건으로 전면 에 내세우지 않는 현실적 전략’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는 미국 내부에서도 치열한 논쟁을 반영하고 있다. 첫째, 빅터 차(Victor Cha)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 등이 주장하는 ‘현실적 군비통제·위험감소 접근론’이다. 빅터 차는 지난 30년간 추진해 온 ‘선(先) 완전한 비핵화(CVID)’ 접근의 한계를 인정하고, 현실적으로 북한의 핵무기·미사일 능력을 인정하는 전제하에 핵물질 생산 중단, 미사일 배치 제한, 핫라인 구축 등 즉각적인 위협 감축(Risk Reduction)과 군비통제(Arms Control)에 집중하자는 제안하고 있다.<sup>3)</sup>

둘째, 트럼프의 측근인 프레드 플라이츠(Fred Fleitz)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부소장 등이 경고하는 ‘비핵화 후퇴 불가론’이다. 플라이츠는 “평화 회담을 촉진하고 북한 비핵화 추진을 위해 전담 활동할” 대북 특사 임명을 촉구하는 한편,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러시아, 북한으로부터 증가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활용해야 할 안보 동맹망의 일원”이라며 일본을 포함해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하고, 호주, 인도, 필리핀, 대만, 영국 등 다른 지역 국가와의 협의도 주문한 바 있다.<sup>4)</sup>

## 북한, 비핵화 거부와 '적대적 두 국가론'의 고착화

미국의 적극적인 대화 손짓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선뜻 협상 테이블로 뛰어 들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2019년 하노이 회담 실패가 남긴 깊은 정치적 트라우마와 강화된 자체 국력에 있다. 김정은은 하노이에서 아무런 성과 없이 빈손으로 복귀하며 내부적으로 막대한 정치적 타격을 입었다. 따라서 확실하

게 담보된 사전 성과물이 없는 한 성급히 정상회담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이 매우 확고하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은 하노이 노딜 이후 국가 전략을 완전히 전환했다.

첫째, 핵무력의 법적·제도적 고착화다. 북한은 2023년 9월 헌법 본문 제58조에 핵무력 고도화 정책을 명기한 데 이어, 2026년 3월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에서도 핵보유국 지위를 재차 엄격히 규정했다.

둘째, 대남·대미 노선의 근본적 변화다. 북한은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공식 정의하고, 2025년 9월 최고인민회의 연설을 통해 “우리에게 ‘비핵화’는 절대로 있을 수 없으며, 제재 풀기에 집착하는 협상 따위는 없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2026년 2월 제9차 당대회 사업총화보고에서도 김정은은 “미국이 헌법에 명기된 우리 국가의 현 지위(핵보유국)를 존중하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한다면 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공을 미국으로 넘겼다. 즉, 비핵화를 전제로 한 협상은 전면 거부하되, ‘핵보유국 대 핵보유국 간의 군비통제 회담’이라면 응할 수 있다는 ‘엄격한 조건’을 붙인 것이다.

## 김여정 담화에 나타난 북한의 전략적 기싸움

트럼프의 연합훈련 축소 지시와 소셜미디어 유화 메시지에 대해 북한은 2026년 8월 19일과 20일,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의 연속 담화를 통해 냉온 양면의 입장을 내놓았다.

김여정은 트럼프의 훈련 축소 발표에 대해 “평할 가치도 없으며 전혀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이는 훈련 축소 따위의 임시방편적 조치로는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로 인정할 수 없으며, 제재 해제나 핵보유국 인정과 같은 근본적 대가가 없는 한 쉽게 움직이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다. 또한, 트럼프가 시사한 양 정상 간 소통설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하는 일”이라며 사실상 부인했다.

그러나 김여정은 “두 지도자 사이의 관계는 의연 훌륭하다”고 언급함으로써 정상 간의 인적 채널과 대화의 여지는 의도적으로 남겨두었다. 이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다급해진 트럼프의 심리를 자극하여 대북 제재 전면 완화, 적대시 정책 철회 등 파격적인 선제적 양보를 끌어내기 위한 고도의 몸값 올리기 전략으로 풀이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 조선우표사에서 2022년 발행한 '핵무력 법제화' 기념우표〉

2) 데이비드 와일졸은 한 포럼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트럼프 행정부 정책의 우선순위 목록에서 "very high up on the priority list(매우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정 정책의 순위를 매기는 것은 피하겠다고 하면서도, 트럼프 행정부에서 북한에 관한 대화는 비핵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했다. "U.S. diplomat says N. Korea's denuclearization 'very high up' on U.S. priority list," Yonhap, June 19, 2026.

3) Victor Cha's 'Cold Peace' Proposal Echoes Geneva Accord Debate, The Chosun Daily, 2026. 6. 29.

4) 연합뉴스, 2026. 8. 24.

## 북·중·러 밀착과 국제 제재망의 무력화

북한이 이처럼 당당한 태도를 취할 수 있는 배경에는 급격히 강화된 북·중·러 삼각 밀착 협력이 자리 잡고 있다.



〈올 6월 8일 시진핑(왼쪽) 중국 국가 주석과 김정은(오른쪽) 북한 국무위원장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러시아와의 관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하며 사실상 '군사동맹' 수준으로 격상되었다. 북한은 무기와 병력을 제공하는 대가로 식량·에너지 지원, 정찰위성 등 첨단 군사기술 이전, 그리고 2026년 9월 나선-하산 간 두만강 자동차다리 완공으로 대표되는 물류 인프라 확충을 이뤄냈다. 더욱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외교적 보호막 덕분에 기존 대북 제재망은 사실상 무력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북러 관계의 강화로 상대적으로 소원했던 중국과의 관계 역시 지난 6월 8~9일 시진핑 주석의 평양 방문 시 북·중 양 정상 간의 회담에서 전략 협력 강화와 교류 확대에 뜻을 모았고, 이어서 7월 11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조중 우호협력조약 체결 65주년(박태성 총리-리창 총리 회담)을 거치며 확실한 화복세를 보였다. 북한은 중·러라는 확실한 안보적·경제적 버팀목을 확보했기에, 미국과의 거래를 통해 제재를 풀어야만 했던 2018년 당시의 경제적 고립과 조급함에서 완전히 벗어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과 페이스메이커 기조

한국의 이재명 정부는 미북 정상회담 재개 움직임에 대해 전향적인 지지와 편승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8월 워싱턴 한미정상회담 당시 트럼프의 '피스메이커' 역할을 적극 지원하면서, 한국은 미북 대화가 성사되고 한반도 긴장이 완화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촉진하는 '페이스메이커(Pacemaker)'가 되겠다고 선언했다.<sup>5)</sup>

이러한 기조는 2026년 들어서도 지속되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6월 트럼프의 과거 사진 게시를 “북미 회담을 준비하겠다는 좋은 신호”로 해석하며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평화적 공존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9월 18일 청와대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

화를 원하고 있고 저 역시 대화를 권하고 있다”며, 사전 조정 작업을 진행 중임을 공개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 또한 루비오(Marco Rubio) 미 국무장관과의 연속 회담을 통해 한국이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이자 페이스메이커로서 미북 대화 재개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한미 공조와 '한국 패싱' 경계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진의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 내부의 균열 우려와 ‘한국 패싱(Korean Passing)’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정부와의 충분한 사전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하고, 한국이 미국의 대이란 노력에 동참하지 않은 점을 공개 비판한 것은 동맹의 신뢰성에 상처를 입혔다는 비판을 초래했다. 미 의회 내에서도 잭 리드(Jack Reed) 상원 군사위 민주당 간사 등이 트럼프의 무모한 결정이 동맹을 훼손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북한은 이러한 틈새를 집요하게 파고들고 있다. 김여정은 8월 20일 담화에서 미국의 훈련 축소 지시에 한국 정부가 당황하는 모습을 두고 “상전에 대한 맹신에 빠진 허수아비 군대의 숙명”이라며 조롱했고, 한국 정부의 중재 노력을 “궁색한 변명”이라 폄하했다.<sup>6)</sup> 이는 한국을 남북대화 상대에서 완전히 배제하고 미국과 직접 상대하겠다는 이른바 ‘통미봉남(通美封南)’ 전략의 재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9월 서울안보대화(SDD)에서 미북 대화가 남북대화화로 이어져야 함을 강조하며, 군이 강한 힘과 철저한 준비 태세로 이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당국 역시 대화 초기에는 한국이 잠시 멀어져 보일 수 있으나, 협상의 실질적 진행과 평화 체제 구축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이 필수적이므로 패싱 우려는 불식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sup>7)</sup>

## 실리 외교와 핵심 안보 이익의 수호

한국 정부가 경계해야 할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는 미국과 북한이 각각 정치적 필요에 따라 한국의 핵심 안보 이익을 침해하는 ‘부실 합의’를 도출하

5) 연합뉴스, 2026. 9. 19.

6) 연합뉴스, 2026. 8. 20.

7) SPN 서울평양뉴스, 2026. 9. 8.

는 것이다. 트럼프가 선거용 성과에 치중한 나머지, 북한의 미 본토 공격용 ICBM만 동결·폐기하는 선에서 합의하고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나 이미 보유한 핵탄두는 용인해 주는 이기적 타협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단순한 ‘분위기 조성자’에 그쳐서는 안 된다. 미북 정상 회담이 열리기 전 한미 외교·국방 당국 간의 긴밀한 고위급 협의를 통해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는 어떠한 합의도 수용할 수 없다는 점,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주한미군 지위가 단독 거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 대한민국을 겨냥한 전술핵 및 단거리 미사일 위협 제거가 협상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관측하고 사전 조율을 해야 한다.

## 회담 개최 시기와 장소

트럼프가 연내 회담을 제시한 가운데, 회담이 실제 성사된다면 그 시기와 장소에 대해 몇 가지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10월에 평양을 전격 방문하는 ‘옥토버 서프라이즈’다. 11월 3일 미국 중간선거 직전, 극적인 선거 판세 뒤집기를 위해 트럼프가 전격적으로 평양을 방문하여 김정은과 회동하는 구도다.<sup>8)</sup> ‘깜짝 쇼’를 즐기는 트럼프의 정치적 스타일과 맞물려 파급력이 가장 크지만, 실무 협상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11월 중국 선전 APEC 정상회의의 연계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 참모들은 11월 18~19일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제33차 APEC 정상회의 계기에 트럼프의 아시아 순방과 연계하여 미북 회담을 비공개로 타진해 왔다.<sup>9)</sup> 다만 김정은의 전용기 노후화에 따른 이동 거리의 부담과 중국 땅에서 미북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데에 대한 썬법이 변수로 작용한다. APEC 직후 트럼프가 귀국길에 평양을 들르는 변형된 형태도 가능하다.

다만 아직까지 양국 간에 공식적인 실무 준비가 없고, 북한이 비핵화 의제의 거론 자체를 강하게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선전 APEC 정상회의 이전까지 미국과 북한과의 전격적인 합의가 실제로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9월 미중 정상회담을 통한 정치 작업 후 연말 개최다.

9월 백악관에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트럼프와 시진핑이 한반도 정세를 조율한 후, 이를 바탕으로 북한과의 실무 접촉을 거쳐 연말에 제3국이나 판문점에서 회동하는 시나리오다.

## 협상 성격의 변화: ‘CVID’에서 ‘군비통제 및 리스크 관리’로

만약 회담이 성사된다면 협상의 성격은 2019년 하노이 회담 당시와는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하노이 회담이 ‘영변 핵시설 폐기 대 제재 완화’라는 비핵화 단계론을 다루었다면, 향후 재개될 회담은 ‘ICBM 제한 및 핵동결 대 한미연합훈련 축소·제재 일부 완화’를 골자로 하는 군비통제(Arms Control) 회담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세부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단계적 거래안, 즉 첫째, 핵·미사일 모라토리엄 및 사찰: 북한의 추가 핵실험 및 ICBM 발사 중단을 대가로 미국이 인도적 지원 확대 및 일부 제재 유예 라이선스를 발급하는 안, 둘째, 핵전력 상한 설정: 외부 검증을 거쳐 핵물질 추가 생산을 제한하는 대신 미북 관계 정상화 연락 사무소 개설 등의 조치를 주고받는 포괄적·단계적 합의 구조, 셋째, 평화 체제 논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남·북·미·중 4자 회담 추진 등이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 강대강 대치와 군사적 긴장의 지속

그러나 이 같은 회담 타진 기류 속에서도 현장의 정세는 여전히 강대강 대치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한미일 3국의 연합 해상·공중 훈련인 '프리덤 에지(Freedom Edge)'가 종료된 직후인 2026년 9월 12일 새벽,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여러 발을 발사하며 무력시위를 감행했다. 이는 8월 UFS 연습 당시 미사일 발사에 이은 올해 13 번째 탄도미사일 도발이었다.

북한 국방상이 프리덤 에지 훈련을 "미국 주도의 전쟁 시연"이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실력 행사에 나선 것은, 미국이 아무리 연합훈련 축소라는 성의 표시를 하더라도 한미일 군사협력 자체를 중단하지 않는 한 자신들도 무력시위를 멈추지 않겠다는 경고다. 이러한 군사적 긴장 유지는 협상 재개 전 자신의 외교적·군사적 주도권을 극대화하려는 북한 특유의 ‘성동격서’식 기싸움으로 볼 수 있다.

8) 연합뉴스, 2026. 8. 21.

9) 헤럴드 경제, 2026. 8. 19.



〈지난 9월 12일 북한의 장거리포와 미사일 부대 합동 타격 훈련 사진 (사진=조선중앙통신)〉

## 한반도 안보 대전환기, 주도적 정세 관리의 모색

2026년 현재 추진되는 미북 정상회담은 도널드 트럼프 강렬한 정치적 욕구와 김정은의 대외적 위상 강화 셈법이 맞물려 성사 가능성 자체는 과거 어느 때보다 높은 상태다. 그러나 이 대화의 성격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당위적 명분보다는, 핵을 보유한 북한과의 현실적 위험 관리 및 군비통제라는 미증유의 길로 들어서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라는 장기적 공식 목표를 유지하면서도 실제 협상장에서는 비핵화를 유예한 채 ‘핵동결’ 수준에서 트럼프의 치적을 챙기려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인다. 북한 역시 중·러라는 탄탄한 우방을 바탕으로 대북 적대시 정책의 완전한 철회와 사실상의 핵보유국 지위를 요구하며 미북 정상회담을 체제 공고화의 기회로 삼을 것이다.

이러한 대전환의 기로에서 한국 정부가 취해야 할 자세는 명확하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은 한반도 긴장 완화와 대화 물꼬를 트는 데는 유용한 외교적 수단이 될 수는 있으나, 자칫 알맹이 없는 중재자에 그치게 돼 미북 정상회담의 협상 테이블에서 한국의 안보가 소외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결코 안 될 일이다.

정부는 미북 대화를 적극 지지하되, “북핵 용인을 통한 임시방편적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될 수 없다”는 명확한 원칙을 세워 트럼프 행정부와 의 긴밀한 사전 조율을 통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철저히 유지하고, 미북 간 합의에 한국을 겨냥한 전술핵 및 단거리 미사일 위협 감축 조치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강력한 외교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비핵화라는 장기적 목표와 현실적인 단계적 리스크 관리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한미동맹의 튼튼한 관계 정립과 함께 강력한 군사적 자강을 바탕으로 정세를 주도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철저한 실리 안보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

〈외부 필진의 의견은 본지의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탈북민 수기: 김정직 목사

## 제 10화

저는 이사람 목사님의 후원으로 가짜 신분증(호구)을 취득한 후, 한 곳에 너무 오래 머무르면 안전에 좋지 않다는 판단으로 목단강 통독반을 떠나 길림에 위치한 한 가정교회에서 성경공부를 이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길림으로 떠나기 전, 저는 문 목사님 댁을 관리하던 조선족 최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최 집사는 저의 여동생을 찾았는지 물었습니다. 문 목사님 댁에 맡겨두고 떠났던 여동생이 최 집사의 아이들과 문제가 생겨 싸우고 최 집사에게 혼이 난 후 집을 나갔었기 때문입니다 (제9화 참조). 연길에 있는 친척 집에 동생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동생은 그곳에 없었고, 아무리 수소문해도 동생의 행방을 알 길이 없어 기도하던 중이었습니다. 최 집사도 미안함과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최 집사에게 “내 동생이 이 중국 땅에서 아는 사람이라곤 최 집사 밖에 없으니 훗날 다시 찾아온다면 나에게 꼭 연락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낼 길림 교회 연락처를 건네주고 길림으로 떠났습니다.

길림에 와서 공부를 하고 여러 집회에 참여하던 중, 지난번 글에

서 이야기한 것처럼 마음속에 있던 권 집사에 대한 증오와 미움을 하나님께서 만지시며 회개의 영이 부어지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놀랍게도 그동안 제가 굶어 죽지 않기 위해 했던 도둑질 등 여러 나쁜 일들이 하나하나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생존을 위해 도둑질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습니 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잘못된 행동 때문에 피해를 당한 집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혹시나 저의 죄악된 행동 때문에 그 집들이 굶어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과 죄스러움과 부끄러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때 저는 우리 아버지를 신고해서 잡혀가게 만든 권 집사보다 내가 더 흉악한 죄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면서 회개하는 가운데 제 안에 미움과 증오가 회개의 눈물과 함께 쓸려

내려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 후로는 가슴 속에 권 집사를 죽이기 위해 품고 다니던 칼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였습니다. 제가 머물던 길림의 교회로 최 집사가 전화를 했습니다. 최 집사는 다짜



고짜 “제가 좋은 소식 하나 줄테니, 무슨 기쁜 소식인지 맞춰보시오.”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단번에 “제 동생을 찾았습니까?”라고 말했습니다. 최 집사는 하하 웃으며, 얼마나 걱정하고 기다렸으면 단번에 이걸 맞추냐며 동생이 다시 목단강으로 돌아왔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목단강에 있는 동생을 보러 가기 위해 채비를 갖추었습니다. 당시 제가 지내던 곳은 길림성 수란시(舒兰市)였는데, 그곳에서 목단강으로 가려면 하얼빈을 거쳐 가는 것이 최단 경로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도문에서 목단강으로 들어가는 경로밖에 이용해 본 적이 없었기에 어쩌다 보니 수란시에서 도문으로 간 후에 목단강으로 들어가는 기차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문에서 목단강으로 가는 기차 안에서 우연히 권 집사를 만나고야 말았습니다. 그가 저와 어머니를 “호랑이 아가리”와도 같았던 호두진으로 보낸 뒤 거친 1년 반이 지난 시점에서 처음으로 그를 마주친 것입니다. 만약 여전히 제 안에 칼을 품고 있는 가운데 그를 만났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러나 이미 저는 화개하고 그를 향한 미움을 주님 안에서 해결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를 보니 어쩐지 반가운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가질 수 없는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도문에서 목단강으로 가는 내내 그와 함께 대화하며 여행을 했습니다. 권 집사는 자신의 집이 목단강에 있으니 와서 자고 가라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목단강에 도착한 때에는 이미 밤이 늦은 시간이었어서 마침 잘 곳이 필요했던 저는 흔쾌히 그의 집으로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하룻밤을 권 집사와 지내며 여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비록 내 안에 미움과 복수심은 사라졌지만, 위선적인 그의 행동거지와 그로 인해 그

가 겪는 어려움을 보며 마음 한편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권 집사의 집에 들어가 같이 식사를 하던 도중, 권 집사가 누군가로부터 걸려 온 전화를 받았고, 저도 통화 내용을 바로 앞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권 집사에게 한국에서 아무개 목사님이 선교 차원으로 목단강에 왔는데 일정상 권 집사를 만나지 않고 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권 집사는 갑자기 노발대발 성질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화를 내는 이유가 무엇인가 들어보니 그 목사님이 자신을 만나야 자신이 그분한테 무언가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수고비와 선교비를 받을 텐데 그럴 수 없게 되어 화가 난 모양이었습니다. 그와 여러 이야기를 나누면서 알게 된 것은 그가 북라고 교회에서 여러 문제로 인해 쫓겨나게 되어 목단강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그의 아내도 유방암으로 숨을 거두었다고 했습니다. 제 마음 한편에서는 그와 그의 가족이 겪는 어려움이 안타까우면서도, 저의 아버지의 일이나 저와 제 어머니에게 했던 일들, 그리고 앞선 전화 통화에서 화를 내던 그의 모습에서 사뭇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순수한 마음이 아닌 돈을 쫓았던 그의 모습이 결국 그를 북라고 교회에서 쫓겨나게 만들었고, 그 가족들에게 미친 어려움도 그와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이 깨달아지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거짓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어 권 집사와 작별한 후에 최 집사 집으로 가니 동생이 있었습니다. 동생에게 들은 자초지종은 이랬습니다. 동생은 최 집사에게 혼이 난 후에 혼자서 연길까지 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친척집이 어딘지 몰라 헤매던 동생을 누군가가 길에서 남

치해 하얼빈 농촌 마을에 팔아버렸던 것입니다. 중국인 남자에게 강제 시집을 간 동생은 중국말을 몰라 그 동네에서 나오지 못하고 1년이 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사이 그곳



에서 악착같이 중국어를 익힌 동생은 이제 중국 사람처럼 중국어를 할 수 있게 되었고, 기회를 엿봐 그곳에서 탈출한 것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신변에 문제없이 다시 만나게 된 것만으로도 참으로 다행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조선의 딸들이 제 동생처럼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렇게 팔려 갔을까요? 또 그중에 몇이나 다시 가족과 상봉할 수 있었을까요? 조선말이 어눌해질 정도로 중국어가 익숙해진 동생을 보며 그간 혼자서 얼마나 외롭게 지내었는지 상상이 되면서 안쓰러운 마음과 함께 악착같이 중국어를 배운 끈기가 참으로 대견했습니다. 마침, 어머니께서 목단강에서 보모 일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동생을 어머니에게 맡기고 저는 다시 길림으로 돌아갔습니다.

길림에서 저는 신학 공부에 전념하면서 집회가 있을 때마다 참여하여 뜨겁게 예배드렸습니다. 그러던 중, 한 집회 마지막 날, 한국에서 오신 강사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갑작스럽게 “오늘부로 김정직 집사를 북한 선교사로 파송합니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사전에 아무런 계획이 없었던 상태에서 목사님의 선포는 매우 갑작스럽고 놀라긴 했지만, 은혜로운 집회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나온 선포로 받아드리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멘” 하였습니다. 강사 목사님은 단순히 상징적 선포가 아닌, 실제로 저를 북한으로 파송하고자 적극적으로 나서셨습니다. 각 교회 전도사들에게 이야기해 없는 형편에서도 조금씩 선교 헌금을 모으게 하였고, 그렇게 모인 중국 돈 700

위안에 더해 강사 목사님 본인도 200달러를 헌금하셨습니다. 집회는 끝이 났고, 목사님은 한국으로 돌아가셨지만, 저는 결정한 대로 북한으로 들어가기 위해 준비를 했습니다.

다. 마침, 집회를 하며 만난 전도사님 한 분께서 본인이 사역하는 곳에 기도원이 있는데 위치가 바로 두만강 앞이니 북한에 들어가려면 거기를 사용하라고 해주셨습니다. 길 안내를 할 밀수꾼도 소개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떠나기 전, 훈춘에서 열린 한 전도사님 결혼식에서 이사람 목사님도 만나게 되었는데, 제 이야기를 들으신 목사님은 깜짝 놀라시면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조심스럽게 당신이 가지고 있던 돈을 헌금해 주시며 격려하셨습니다.

강을 넘기로 한 날, 기도원에서 전도사님과 기도한 후에 새벽에 저를 데리러 온 밀수꾼 아이를 만났습니다. 그 아이는 저뿐 아니라 자전거와 텔레비전을 등에 메고 북한으로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당시는 추위가 조금씩 약해지던 3월 초였습니다. 강의 한가운데는 아직 얼음이 두툼했지만, 가장자리는 녹기 시작해 살얼음이 되고 있었습니다. 엎드려서 조심스럽게 강을 건너려고 보니 팔꿈치만 닿아도 살얼음에 구멍이 송송 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강을 건너야 할지 고민하는데, 그 밀수꾼 아이는 자신을 따라 하라면서 자전거와 텔레비전은 살며시 얼음 위에 올려놓은 후 밀어서 강 중간까지 보내놓고, 자신은 얼음에 슬슬 누워 뱀처럼 살살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나처럼 하세요.”라는 아이의 소리를 듣고 저도 얼음이 깨지지 않게 무릎이나 팔꿈치를 세우지 않고 얼음에 누웠습니다. 그렇게 뱀처럼 기어서 두만강을 건너 북한 땅을 밟았습니다. 반대편 강변에 도착하니 북

한 쪽에 연결되어 있던 군인이 우리를 마중을 나왔습니다. 그에게 중국에서 가져온 술과 떡을 건네주니 우리를 마을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밀수꾼 아이의 집까지 이르렀을 때 군인은 떠났고, 저도 동이 트기 전 인근에 사는 지인의 집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제가 넘어간 그 지역에는 저희 부모님과 막역하게 지내셨던 국군 포로 아저씨네 가족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탄광에서 일하실 적에 사귄 분인데, 가족끼리 친하게 지내서 저도 그 집 아이들과 자주 놀곤 했습니다. 그 집 가족들은 갑자기 나타난 저를 보고 놀라면서도 반갑게 반겨주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아저씨는 이미 돌아가시고 자녀들도 다 결혼하고 출가하여서 그 집에는 아주머니와 막내아들 가족만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를 뵈니 어렸을 적 저희 어머니께서 종종 이 집에 저와 동생을 맡기셨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올랐습니다.

제가 왔다는 소식을 들은 그 집 형제들은 저를 보러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형제들과 인사를 한 후에 저는 어떻게 이곳에 왔는지, 왜 이곳에 왔는지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해. 이 땅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이래 사는 거야”라고 간절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이것이 무슨 소리인가 하며 의심에 찬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같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던 아주머니께서 갑자기 입을 떼셨습니다. 사실은 아주머니의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모두 기독교인이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형제들은 놀란 눈치였습니다. 그리고 아주머니께서는 “우리 모두 예수를 믿어야겠다.”라며 저의 이야기에 힘을 보태주셨습니다.

그 자리에 없던 그 집 여동생에게 한 형제가 제 이

야기를 전했는데, 그 동생은 정직 오라버니가 간첩이 된 것 아니냐며 저를 보러 오기를 꺼려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저는 “네가 오기 싫으면 네 남편이라도 보내라”라며 저를 보러 오기를 권했습니다. 그 동생의 남편은 아주 건장하고 힘이 센 친구였습니다. 내가 혹시 간첩이라고 해도 그렇게 건장한 사람에게 나한 명 째름 두려울 것이 없지 않겠냐 라고 하며 집에 오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의 남편이 저를 보러 왔을 때, 저는 사람들을 앉혀놓고 다시 복음을 전한 후에 돈을 나눠주었습니다. 선교비로 가져온 중국 돈과 달러를 북한 돈으로 바꿔서 가정별로 나누어 주었는데, 그 액수가 당시 북한 돈으로 1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때 당시 텔레비전 한 대가 북한 돈 6천 원 정도였으니 만원이면 꽤 큰 돈이었습니다. 저는 그 돈을 전달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이 돈을 너희에게 주고 있지만 이것은 내 돈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주신 돈이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어. 나를 통해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주신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어. 기도해.” 어려운 가정에게는 이 돈이 큰 도움의 손길이기도 하지만, 돈을 받게 되면 그들도 공범이 되기 때문에 저를 고발할 수 없게 되고, 또 도리적으로도 제가 말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듣지 않을 수 없게 되는, 여러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였습니다. 여동생의 남편도 알겠다고 자신도 예수를 믿겠다고 하며 받은 돈을 고마워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다음 날이었습니다. 새벽녘에 깨어나 방에서 기도를 하기 위해 무릎을 꿇고 있으려니 바깥 부엌에서 흥얼흥얼거리는 노랫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냥 노랫소리가 아니고 제가 알고 있는 찬송가 “예수 사랑하심을 거룩하신 말일세”의 가락이었습니다. 신기한 마음에 기도를 마치고 나가보니 아주머니가 손

주를 등에 업고 쌀을 일고 계셨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그 노래를 어떻게 아세요? 그건 찬송가인데.” 아주머니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6살 때 엄마 손을 쥐고 교회에 가서 울동도 하고 노래

도 부르곤 했었네. 근데 6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갑자기 오늘 나도 모르게 입에서 찬송 가락이 나오는구나.”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눈물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의 씨는 마르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깨닫습니다. 60년이 넘게 부르지 않았던 그 찬송을 이제 다시 터져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주머니께서는 자신이 어려서 교회에 가서 얼마나 즐거웠었는지, 또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본인은 예수를 믿으니 절대 제사를 지내지 말라고 하셨다는 이야기들을 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하나님께서 그루터기를 남겨두신다는 의미를 그제서야 깊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2주 정도를 그 집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며 지냈습니다. 그렇지만 더 머물렀다간 모두 위험해질 듯하여 다시 강을 건너 중국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이른 시일 안에 돌아가기로 하고 그 집 가족들에게 이야기하는데 마침 저를 간첩이 아니냐고 의심했던 동생이 찾아와 함께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 동생은 저를 간첩으로 의심한 것에 대해 사과하며 받은 돈을 잘 쓰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다시 그 동생에게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언제 다시 중국으로 돌아갈지를 들은 가족들이 제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기 시작하면서 얼



어있던 강이 녹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강을 넘을 것인지를 걱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라버니, 강변에서는 물에 들어가서 걸어간다고 해도, 강 중간에는 얼음이 남아 있어서 그 얼음 위로 넘어가야 할 건

데...” 그 말을 들은 저는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나를 여기 보내놓고 중국에 많은 교회들에서 성도들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모른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조건이 되는 곳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기도하기에 어려운 조건인 이 북한 땅에서 그대들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너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다.” 감사하게도 가족들은 모두 알겠다고 기도하겠다고 대답하였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그날은 아침부터 함박눈이 펄펄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눈이 내리더니 그다음 날부터는 눈보라가 치고 칼바람이 불었습니다. 날씨가 갑작스럽게 추워진 것입니다. 그날 그 집의 막내며느리가 저에게 찾아와 말했습니다. “큰아버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네요. 봐요, 갑자기 저 강이 얼어버릴 거라는 걸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저도 걱정이 되어서 온 밤 기도를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강을 단단하게 얼어 붙이셨네요!”

다음 날 새벽, 저는 중국으로 가기 위해 두만강을 건너는데 들어갈 때는 뱀처럼 기어갔지만 돌아올 때는 땅땅 얼어붙은 얼음 위를 춤을 추며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고, 북한 땅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목격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계속) 

## 북한 이해를 위해 더 읽을만한 책

제 목: 내가 본 김정은

저 자: 이일규

출판사: (주)도서출판미래사

발행일: 2026.09.01

가 격: 24,000원



최근 수년 사이 북한 고위급 외교관들의 잇단 탈북으로 우리는 쉽게 듣기 어려웠던 북한 지도층의 이야기를 여럿 접할 수 있었다. 전 주영 북한 공사였고 2016년 망명한 태영호 씨의 “3층 서기실의 암호”, 전 주쿠웨이트 북한 대사대리이며 2019년 망명한 류현우 씨의 “김정은의 숨겨진 비밀 금고” 등의 책들은 우리에게 북한의 내밀한 이야기들을 살펴볼 수 있는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었다. 오늘 소개할 책, “내가 본 김정은”은 주쿠바 북한대사관 정무참사 겸 당세포비서로 일하다가 2023년 탈북한 이일규 씨의 탈북 스토리를 담은 저서이다.

“내가 본 김정은”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1장, 분노가 불려온 탈출’은 자신의 긴박했던 탈북 스토리가 담겨 있다. ‘제2장, 나의 삶’은 자신의 어린 시절부터 결혼까지의 이야기를, ‘제3장, 북한 외교가의 숨겨진 이야기’는 자신이 외무성에서 일하면서 겪었던 여러 에피소드를 정리했다. ‘제4장, 내가 만난 김정은, 김정은의 사람들’은 김정은과 그 주변 인물인 최룡해, 리용호, 황병서, 김영남 등에 대한 이야기와 북미 정상회담의 배경 이

야기 등을 담고 있다.

이 책은 코로나19 이후에 탈북한 만큼 비교적 최근의 외교 이슈들의 뒷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점에서 인상 깊었다. 탈북 시기가 최근이다 보니 2017~18년 핵실험과 대북제재를 겪으며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던 외교 현장, 2019년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된 뒷이야기, 적대적 두 국가론이 발표되기 이전에 보였던 외무성 내의 변화 등 이전에 다른 서적에서 읽을 수 없었던 굵직한 최근의 이슈와 관련된 이야기가 흥미로웠다.

북한과의 관계가 돈독한 쿠바를 비롯한 중남미 외교 현장의 이야기를 접할 수 있다는 점도 특별하게 다가왔다. 저자가 북한과 오랫동안 돈독한 관계를 가져온 쿠바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만큼, 북한이 우방과의 관계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등이 잘 묘사가 되어 있었다. 북한이 이들과의 관계를 얼마나 신경 쓰고 있는지, 외교적 관례나 의전 사항이라든지, 그 외에 북한이 외부 세계의 여론 등에 얼마만큼 신경 쓰고 반응하는지 등도 흥미로운 내용이였다. 저자가 직접 참여한 청천강호 사건 등 실제 경험담을 읽을 때면 북한의 외교 활동에 대한 힌트를 얻는 느낌도 받게 된다.

북한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책들이 공통적으로 담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 책 역시 북한의 억압과 부조리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저자 스스로가 북한의 부조리에 환멸을 느껴 탈북을 결심하게 된 만큼, 자신이 보고 경험한 북한 체제의 부조리와, 특히 엘리트라 불리는 이들 간의 알력 다툼이나 불안감에 시달리는 모습 등을 솔직하게 표현하였다. 일반 서민뿐 아니라 평양의 엘리트라 불리는 이들도 큰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지내고 있음을 접할 때마다 북한에서 작용하는 억압이 얼마나 사회 전반에 질게 드리워있는지를 조금이나마 느끼게 된다. 어린아이들부터 “세상에 부럼 없어라” 노래하게 하지만, 정작 누구도 행복해 보이지 않는 그곳의 현실에 대해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게 되는 대목이다.

이일규 씨의 저서 “내가 본 김정은”은 앞서 나온 여러 외교관 출신의 저서들과 맥을 같이하면서도, 비교적 최근의 북한 외교가와 관료 사회의 분위기를 가감 없이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북한의 실상과 엘리트 계층의 고민을 조금 더 가까워서 이해하고자 하는 독자라면,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을 한층 더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

## 북러 잇는 두만강 자동차다리 개통



〈9월 7일 개통된 두만강 자동차다리를 건너 북한 쪽으로 향하는 러시아 측 차량 행렬(사진=타스통신)〉

북한과 러시아를 잇는 두만강 자동차다리의 개통식이 9월 7일(현지 시간) 열렸다고 타스 통신이 보도했다. 미하일 미슈스틴 러시아 총리와 박태성 북한 내각총리는 이날 화상 연결을 통해 다리 개통 행사에 참석했다.

미슈스틴 총리는 해당 다리가 화물·여객 운송량 증가 전망을 반영해 설계됐으며 "하루 최대 300대의 차량이 통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다리가 러시아 서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극동 블

라디보스토크까지 이어지는 '동서 국제 교통회랑'의 일부라고 했다. 미슈스틴 총리는 국경의 교통 인프라 확장이 양국 간 무역, 경제, 과학, 기술, 문화 협력의 발전에 강력한 동력이 될 것이라며 "새 일자리가 창출되고 관광산업 전망도 밝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총리는 "북한과 러시아 양국 지도자의 탁월한 선견지명과 전략적 지도력 덕에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조약을 기반으로 모든 분야에서 상호 유익한 교류와 장기 협력사업이 적극적으로 이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타스는 전했다.

두만강 자동차다리는 1946년 당시 김일성 북한 주석을 향해 투척 된 수류탄을 막아낸 소련군 장교 야코프 노비첸코의 이름을 따 명명됐다. 이날 행사에서 노비첸코가 생전에 소유했던 붉은색 자포로 제츠 승용차를 그의 손자인 니콜라이 세르비츠키가 직접 몰아 다리를 건너는 러시아 측 차량 행렬을 이끌었다. (참고: 연합뉴스, 9월 7일) 🐟

## 북중 8월 무역액 지난해 비해 31% 증가... 대중 수출 9년 만에 최대

올 8월 북한과 중국의 무역액이 유엔 대북 제재가 본격화한 2017년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9월 19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중국 해관총서의 8월 무역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 기간 북·중 수출입 총액은 약 2억 3,788

만 달러(약 3,302억 원)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2억 2,936만 달러) 대비 3.7%, 지난해 같은 기간(1억 8,171만 달러)보다 30.9% 각각 늘어난 수치이며,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가 잇따라 채택된 2017년 이후 8월 실적으로는 가장 큰

## 북한, 잇단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2022년 1월 화성-11나(KN-24)형을 발사하는 모습〉

북한이 유엔총회와 미중 정상회담 등을 앞둔 9월 20일 탄도미사일 두 발을 약 세 시간 간격으로 연이어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합참)에 따르면 군은 이날 오후 3시께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1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미사일은 약 450km를 비행

했다. 이어 북한은 이날 오후 5시 50분께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추가 발사했으며, 해당 미사일은 600km 이상 비행했다.

두 차례 발사된 미사일 모두 북한의 대표적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화성-11 계열로 추정된다. 화성-11 계열 미사일로는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화성-11가(KN-23), 북한판 에이태컴스로 불리는 화성-11나(KN-24) 등이 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올해 들어 14번째이자 8일 만이다. 직전인 지난 9월 12일 발사 때는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SRBM 수 발을 발사했으며, 이틀 뒤 대외용 매체를 통해 전술탄도미사일과 공격무인기, 전략순항미사일, 대구경 열압 방사포 등 4종을 '섞어 쓰기'한 협동화력습격 훈련이었다고 공개했다. (참고: 연합뉴스 9월 20일) 🐟

규모다.

특히 북한의 대중국 수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지난달 북한이 중국으로 수출한 금액은 5,503만 달러로 7월의 4,437만 달러보다 24% 늘었다. 작년 8월(3,409만 달러)과 비교하면 61.4% 급증했다. 북한의 대중 수출액이 5천만 달러를 넘어선 것은 2017년 8월 이후 처음이다. 제재 속에서 기존 북한의 8월 대중 수출은 통상 1천만

~2천만 달러 선에 머물렀다. 북한의 대중국 수입액은 1억 8,285만 달러로 전월(1억 8,498만 달러)과 비교해 1.1% 감소했으나 작년 8월(1억 4,761만 달러)보다는 23.9% 증가했다. 올해 1~8월 기준 북한과 중국의 누적 무역액은 19억 7,393만 달러로, 20억 달러 돌파를 앞뒀다고 VOA는 전했다. (참고: VOA, 9월 19일) 🐟

## 북한 해외 노동자 10만 명 넘어… 러 드론 공장 등에서 외화벌이

북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을 감시하는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은 9월 16일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해당 보고서는 현재 북한 노동자 3만 5,600~10만 1,280명이 최소 17개국에 체류하면서, 2025년 기준 4억 5천만~8억 달러의 수익을 냈다고 추정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외경제성과 정찰정보총국, 39호실 등 북한의 주요 기관 주도로 해외 파견되는 북한 노동자들은 주로 건설, 단순 가공, 정보통신(IT), 의료, 식당 등 부문에 종사하고 있다. 노동자 수익의 상당 부분은 중·러 소재 북한 무역회사들의 군수물자 조달 등에 사용되고, 일부는 북한으로 송금된다. 유엔 제재 대상 은행(조선무역은행·조선광선은행) 등이 이 과정에 활용되며, 북한 외교차량·행낭, 해외 출장자를 통한 현금 운반 사례도 관찰된다.

중국에는 약 2만~7만 명의 노동자가 파견된 것으로 추정된다. 2023~2025년 약 1만~2만 명이 북한으로 돌아가며 규모가 줄었으나, 2025년 1월~2026년 1월 약 1만 명이 중국에 신규 파견된 것으로 추정되며, 앞으로 그 수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에 체류 중인 노동자는 약 1만 5천~3만 명인데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급증했다. 상당수가 드론 공장에서 러시아를 위한 군용 드론을 생산하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북한 노동자를 학생으로 위장해 러시아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학업 비자 제도를 마련했다. 월급은 업종에 따

라 중국에서 받는 것보다 최대 5배까지 높을 수 있어, 최근 북한은 러시아 인력 파견을 선호하고 있다. 이 밖에도 아프리카와 동남·중앙아시아에서 의료와 건설, IT 등의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

보고서는 북한 당국이 노동자들이 벌어들인 임금의 80~90%를 몰수하고 있으며, 일부 사례에서는 몰수액이 노동자의 실제 소득을 초과해 노동자가 당국에 빚을 지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 당국은 탈북을 막기 위해 노동자들의 이동과 외부인 접촉을 극도로 통제하고 있으며, 탈북할 경우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보복 위험에 처하게 된다.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은 보고서와 함께 낸 공동 성명에서 “최소 17개국이 여전히 북한 노동자를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며 이들이 창출한 수익은 북한의 불법적인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인식을 제고하여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책임 당사자와 조력자들에게 국내 조치 등을 통해 책임을 물을 것”을 독려했다.

한편, 북한은 이번 보고서에 대해 외국과의 호혜적이고 일상적인 경제협력 관계를 걸고 드는 보고서라고 비난하며 “정상을 비정상적으로 왜곡하고 합법을 불법으로 몰아붙이는 모략단체로서의 정체성을 명백히 드러내 보였다”고 반발했다. (참고: 9월 16일, 언론 보도 종합) 🐟

## 신압록강대교서 대형 화물차 운행 포착… 정식개통 임박했나



〈9월 20일 신압록강대교 통해 중국 단둥에서 북한 신의주 방향으로 운행 중인 트럭 (사진=연합뉴스)〉

북한 신의주와 중국 단둥을 연결하는 신(新)압록강대교 위로 대형 화물차가 운행하는 장면이 포착됐다고 연합뉴스가 대북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9월 20일 오전 중국 단둥쪽 신압록강대교에서 대형 트럭 한 대가 신의주 방향으로 넘어갔다. 화물칸에 어두운 색상의 덮개를 씌운 트럭이었다. 신압록강대교를 건너는 대형 화물차가 실제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다리의 정식 개통을 앞두고 시험 운행을 한 것일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소식통은 최근 화물차가 신압록강대교를 이용해 북한 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목격한 현지 주민이 적지 않다고 전했다. 현지 주민과 대북 무역업계에선 10월 5일 혹은 6일께 신압록강대교가 문을 열 수 있다며 구체적인 날짜까지 거론되고 있다. 특히 6일은 북한과 중국이 수교한 지 77주년이 되는 날이어서 북중 관계 개선 흐름에 맞춰 정식 개통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신압록강대교 개통이 임박했다는 정황은 최근 잇따라 감지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북한 쪽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적힌 대형 관문과 세관으로 추정되는 건물이 들어섰고, 주변 진입로 공사도 대부분 완료됐다. 최근 신압록강대교 중국 측 입구에 번호판이 달리지 않은 전기 승용차들과 굴착기 등이 대기 중인 모습도 포착됐다고 전했다. (참고: 연합뉴스, 9월 20일) 🐟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잇달아 북한과의 회담 추진 의지를 밝히면서 북미 정상회담이 올해 안에 열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노선과 계속되는 핵 무력 증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번 북미회담이 돌파구가 되어주길 바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하지만 회담이 성사되더라도 한 번의 회담으로 북핵 문제가 큰 폭의 진전을 이루리라 기대하기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회담이 단순한 한 번의 이벤트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번 회담이 일회성 이벤트에 머물지 않고, 장기적인 군축과 북핵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첫 단추를 끼우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 예상되는 북미정상회담이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이번 회담이 정작 한국에 대한 안보 위협을 심화시키거나 북한의 핵 개발을 용인 또는 방치하는 합의가 이루어질 것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이번 회담이 보여 주기 식 합의가 아닌 실제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회담의 내용과 방향성이 바르게 설정되도록 기도합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과 긴밀하게 공조하고 회담 내용에 한국의 안보적 우려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3** 북한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두만강 자동차 다리가 9월 초에 개통되었습니다. 북한과 중국 간의 물동량이 대폭 증가하고 양국 간 협력이 점차 구체화 되는 가운데, 북러 간 자동차 다리 개통으로 북한과 중국, 북한과 러시아 간 교류는 앞으로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은 사람보다는 물류 위주의 교류에 머무르고 있지만, 인적 교류도 시간을 두고 점차 확대될 전망입니다. 북한과 주변국 간 교류 확대가 북한 선교의 기회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강화된 국경 통제와 디지털 감시 체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새로운 길을 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와 함께 현장의 선교사와 사역자들이 변화하는 환경을 잘 분별하고 안전하고 지혜롭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4** 러시아와 중국과의 교류 확대 속에서 북한 경제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 효과가 일반 서민들에게는 여전히 제한적인 모습입니다. 게다가 외부와의 교류 확대에 따라 높아진 외화 수요와 그에 따른 환율 상승은, 달러나 위안화 등 외화를 가진 이들과 그렇지 못한 서민들 사이의 경제적 차이를 더 키우고 있습니다. 커져만 가는 빈부격차가 완화되고, 일반 서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고단함 가운데 있는 주민들의 일상에 최소한의 생계 안정과 평안이 주어지도록 기도합니다.

**5** 북한은 헌법을 개정하며 적대적 두 국가론을 공식화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통일의 기반이 되어 온 민족에 대한 의식이 우리 안에서도 점차 약해지는 가운데, 북한이 통일과 민족 개념을 모두 폐기하면서 통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평화와 충돌하는 것처럼 비추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분단 상황이 지속되는 것이 진정한 평화는 아닐 것입니다. 또한 북녘의 동포들과 지하 성도들을 생각할 때 통일을 위한 노력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변화된 상황에 맞는 새로운 통일과 평화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한반도 전역을 하나의 교회 공동체로 하는 역사적 뿌리와 자산을 잘 지키고 복음적 평화통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6** 북한의 기독교 박해 중단과 갇혀있는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은 성경을 비롯한 기독교 관련 미디어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을 규정하는 등 기독교인에 대한 극심한 탄압과 박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북한에 억류 중인 김정욱(2013), 김국기(2014), 최춘길(2014) 선교사님은 그 기간이 만 11년을 넘기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진 지하 교회 성도와 강제 복송 탈북 여성 신자가 있습니다. 북한의 기독교 박해가 하루 속히 중단되도록 기도합니다. 수용소에 갇힌 성도와 억류된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연좌제로 인해 처벌 및 추방을 당한 지하 교회 성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7** 해외 북한 선교 현장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북한과 주변국 간의 밀착 관계 속에서 선교 현장의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속적으로 종교 활동에 대한 통제 규정을 강화하고 있으며, 자국 체류 탈북 여성들에 대한 디지털 감시와 통제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이번 종교적 성격을 가지고 북중 국경을 방문하는 여행팀에 대한 단속과 통제가 강화되었고, 이로 인한 실제 피해 사례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탈북자 사역을 하던 백 모 선교사님이 여전히 억류 중인 가운데, 지난 1월에 체포되신 박 모 선교사님에 대한 재판 과정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긴장감이 높아지는 선교 현장의 상황 속에서 일선 선교사와 현장 사역자들이 지혜롭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특히 갇힌 선교사님들의 조속한 석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서울시 동작 우체국 사서함 56호 우편번호 07056  
 \* TEL 02-596-3171  
 \* Home Page : [www.opendoors.or.kr](http://www.opendoors.or.kr)  
 \* E-mail : [info@opendoors.or.kr](mailto:info@opendoors.or.kr)

■ 후원계좌 (북한선교)  
 국민은행 (한국오픈도어선교회)  
 029301-04-169183

북한월간개발소식 / 등록일 : 2010년 9월 27일 / 등록번호 : 성북, 라 00067 / 발행년월일 : 2026년 9월 30일

# OpenDoors WORLD WATCH LIST 세계 기독교 박해 지수 2026



카카오톡 채널

‘우리의 버전은  
그 어떤 그리스도인도  
홀로 박해받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 국가 목록에 대해

세계 기독교 박해 지수는 오픈도어의 분석가들이 150개국 현지 전문가들의 실제 데이터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각 국가의 박해 상황은 폭력과 압박을 추적하는 점수 시스템을 통해 기록된다. 이는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력 사건의 수와 심각성, 그리고 신앙 생활의 5개 영역에서 가해지는 압박의 정도를 측정한다.

- 폭력
- 개인 생활
- 가족 생활
- 공동체 생활
- 국가 생활
- 교회 생활

각 항목의 최대 점수는 16.7점이며, 이를 모두 합산했을 때 총 최대 점수는 100점이다.

각 국가의 순위는 100점 만점 중 해당 국가의 총점에 의해 결정되며, 이는 박해의 심각성을 나타낸다.

## 박해 정도

- 높음 4.1-60점
- 매우 높음 61-80점
- 극심함 81-100점

목록에 포함된 모든 국가는 기독교 박해 수준이 '매우 높음' 또는 '극심함' 단계로 분류되어 있으며, 이는 해당 국가 내 기독교인들이 겪는 박해의 강도가 매우 심각함을 보여준다.



- 북한
- 소말리아
- 예멘
- 수단
- 에리트레아
- 시리아
- 니제르
- 파키스탄
- 리비아
- 이란
- 아프가니스탄
- 인도
- 시리아
- 미얀마
- 말리
- 부르키나파소
- 중국
- 이라크
- 볼라드
- 알제리
- 모리타니
- 중앙아프리카공화국(CAR)
- 모로코
- 쿠바
- 우즈베키스탄
- 니제르
- 타지키스탄
- 러로스
- 콩고민주공화국(DRC)
- 멕시코
- 튀니지
- 니제르
- 방글라데시
- 부탄
- 투르크메니스탄
- 에티오피아
- 케냐
- 오만
- 모잠비크
- 키르기스스탄
- 튀르키예
- 아랍
- 코모로
- 카타르
- 키르기스스탄
- 네덜
- 클라바
- 차드
- 요르단
- 보트니

